



255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5월25일 서울 조계사에서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이날 오전10시 조계사 앞마당에서 봉행된 중단 법요식에는 원로의장 밀운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중앙총회의장 성문스님을 비롯한 중단 스님들과, 이기홍 중앙신도회장을 비롯한 재가불자, 정관계 인사 등 1만여명이 참석해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며 실천을 서원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사바도 꿈이요
마음도 본래 밝은데
부처님 오신 뜻은...

■ 진제 종정예하 봉축법어



사바에 몸을 나누시니 인간세계가 환희에 젖음이요, 이로 좇아 억조창생(億兆蒼生)이 활로를 찾음이다. 일곱 겹겹을마다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를 나뉘시오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일체개고아당안지(一切皆苦我當安之)라 하시니, 이로 좇아 만 중생이 생사(生死)를 다해 마쳤고 지옥과 천당이 자취를 감추었으며 고통이 안락으로 번니가 지혜로 돌아가며 사바에 어둠이 걷히고 진리의 대광명이 주아로 빛을 발함이라. 집집마다 문을 나섬에 서울로 통하고 집집마다 부처님과 보살님이 맞이함이다.

사바에 서광(瑞光)이 처음 깃든 오늘에 부처님께서 감탄하신 날입니다. 이는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니, 나를 위해 등을 밝히는 이는 어둠에 갇히고 남을 위해 등을 밝히는 이는 부처님과 보살님께 등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반도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등을 밝히고 모든 이웃의 아픔을 같이하는 등을 밝히고 모든 유무주우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등을 밝혀 다 같이 부처님 오시는 길을 아름다운 등으로 장엄합시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바가 어둡다 하나 사바 또한 꿈과 환이거늘, 어찌 어둡고 밝음을 논하며, 마음을 밝히려 하나 이 마음은 본래로 밝아 있었음인데 어찌 다시 밝힐 것이며, 마음을 찾으라 하나 한 순간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 항상 쓰고 살고 있거늘, 어느 곳에서 이 마음을 찾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부대중이시여,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참 뜻을 아시겠습니까?

拂開古佛三千界
指出群生一片心
옛 부처와 삼천세계를 잡아 넓이요,
못 중생의 한 조각 마음을 가리켜냄이로다.

부처님 오시는 길 아름다운 등으로 장엄

전국 사찰서 '부처님오신 뜻' 찬탄
255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통일기원 남북 공동발원문 발표
성소수자도 초청 공존사회 서원

불기 2559(201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2만여 사찰에서 일제히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무심을 찬탄하는 법회를 봉행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향기로운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불자가 될 것을 서원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25일 서울 조계사에서 원로의장 밀운스님, 총무원장 자승스

님, 중앙총회의장 성문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요식은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한 삶, 갈등과 대립이 아닌 공존과 상생하는 세상을 기원하는 서원의 장이자, 모든 존재의 존귀함을 선언하신 부처님 가르침대로 우리사회 모든 이들과 함께 한 화합의 장이었다.

전명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위원장과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기룡전자 노조 유홍희 분회장, 성소수자를 대표해 김조광수 영화감독 등이 사회이웃으로 법요식에 초청돼, 부처님 전에 헌화하며 모두가 차별없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기를 염원했다. 카만 싱라마 주한네팔대사도 네팔 지진 피해 극복을 기원하며 헌화했으며,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박남수 천도교 교령은 이웃종교를 대표해 부처님 전에 종교간 화합을 발원하는 향을 올

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중섭 행정자치부 장관, 강창일 국회 정각회장, 최원영 청와대별자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해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했다.

창법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법상에 오른 원로의장 밀운스님은 진제 종정예하를 대신해 봉축법어를 내렸다. 진제 종정예하는 원로의장 밀운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나를 위해 등을 밝히는 이는 어둠에 갇히고 남을 위해 등을 밝히는 이는 부처님과 보살님께 등을 올리는 것"이라며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등, 이웃의 아픔을 같이하는 등을 밝혀 다 같이 부처님 오시는 길을 아름다운 등으로 장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마음을 찾으라 하나 한 순간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 항상 쓰고 살고 있거늘, 어느 곳에서 이 마음을 찾겠습니까"

라며 부처님께서 오신 뜻을 되새겨 마음을 깨달아 참 나를 찾는 불자들이 될 것을 주문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분단의 아픔을 견어내고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길 기원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16일 세계평화기원대회에서 발표한 '공존, 상생, 합심'의 불교통일선언을 언급하며 "남북이 서로 대립하고 살아온 70년의 세월은 너무나 큰 아픔이다. 이제 우리는 이 아픔을 견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네팔 국민들이 빨리 절망에서 일어나도록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야 한다. 안전한 나라, 생명이 우선한 사회,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향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네팔 지진 참사와 세월호 상처 극복을 위한 노력과 관심을 당부했다.

▶2면에 계속

임태규 기자 chet1@bulgyo.com

부처님오신날 연휴 관계로
5월30일 6월3일자 '휴간'

3110호는 6월6일 발행됩니다.

독자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THE MYUNG WON CULTURAL FOUNDATION

한국다도종가
명원문화재단

전통 다도 예절 교육(자격증)과정

구분	과정명	기간	자격
명원 다도예절문화원	준사범 과정	1년	제한 없음
	사범 과정	1년	심사에 의함
명원 다도대학원	교수다인 과정	1년	사범 이상
	최고명인 과정	1년	심사에 의함

문의처 www.myungwon.org
재단교학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330-507 Tel. 02)742-7190~1 Fax. 02)745-9095

財團法人
茗園文化財團
MYUNG WON CULTURAL FOUNDATION